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

전남 수백년 巨木·숲 6건 천연기념물 됐다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등 지정

전남에 소재한 노거수(老巨樹) 등 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9일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와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수령 400년으로 추정되는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는 나무높이 15m, 밑동둘레 1.8m로 지금까지 밝혀진 황칠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됐으며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는 높이 28m, 둘레 10.5m로 수형(樹形)이 아름답고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또 보성 팽나무 숲은 300~500년생 팽나무 18그루와 느티나무 1그루로 바닷바람 등을 막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장흥 삼산리 후박나무는 수령 400년(추정) 정도의 세 그루가 한 그루처럼 서로 어우러져 있다. 이밖에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는 나라의 중대사에 울음소리를 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화순 개천산 비자나무 숲은 분포면적과 생육상태 등이 양호하다. /송기동기자 song@ /사진=최현배기자 choi@

순천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합친다

市·업체관계자 통합 원칙적 합의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장천동에, 고속버스 터미널은 매곡동에 있는 별도 건물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버스 터미널이 분산돼 있어 농촌지역에서 서울 등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대형 버스가 시내에 있는 터

미널까지 운행돼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와 금호·천일고속 관계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장천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통합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통합된 버스 터미널의 운영권과 금호고속 소유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천일고속이 사용할 경우 임대료 산정 문제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

제로 남아 있다.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은 금호고속과 천일고속이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으며 매표 등 운영은 천일고속이 맡고 있다. 순천시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통합될 경우 구 고속버스 터미널을 매입, 시민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금호고속측은 지난해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 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남약신도시 'Sun-City' 내년 2월 착공

전남도 세부추진 일정 확정

전남도청이 자리한 남약신도시에 건설되는 'Sun-City' 조성 공사가 내년 2월 본격 착수된다. 전남도는 9일 '남약신도시 Sun-City 조성'과 관련한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8~10월에 기술디자인 공모와 평가, 선정을 마치고 11월 중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 2월부터 Sun-

City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un-City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도청 주변 야외공연장에 태양광 전지를 사용한 지붕이 설치되며 주차장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전지 그늘막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전남도청으로 부터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중심 녹지축에 태양광·풍력 가로등이 설치되고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산책로 및 체합·전시공간

등이 세워질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공공기관과 초·중등학교에 태양열 온수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춘 등 남약신도시를 교육과 관광, 친환경의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목포 옥암지구에 전국 최초의 민간아파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남약신도시 Sun-City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화순~능주 국도변 배롱나무 꽃 물결

국도 29호선인 화순~능주간 도로가 배롱나무 꽃으로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92년부터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국도와 지방도 150km에 2만2천여 그루의 배롱나무를 심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옛 나주역 고속철로변 녹슨 철조망 방치 '눈살'

설치 2년도 안돼 부식

나주시 죽림동 구 나주역사 옆 200여m 구간에 설치된 고속철로변 철조망이 녹이 슬고 부식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곳 철조망은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5년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철조망이 설치된 지 2년도 채 못돼 녹이 슬고 부식

됐다"며 "철망보수나 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 사무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점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로 건설분야는 순천에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며, 유지보수관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맡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동광양~청주 등 2개 노선 신설

금호고속(대표이사 김성산)은 10일부터 동광양~광양~순천~청주 및 강진~나주~인천 노선을 신규 운행한다. 동광양~광양~순천~청주 노선은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출발시각은 동광양발 오후 2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며, 청주발은 오전 8시 30분·오전 10시 30분이다. 소요시간 및 요금은 동광양~청주 4시간·2만원, 광양~청주 3시간 30분·1만9천원, 순천~청주 3시간 20분·1만7천500원이다. 강진~나주~인천 노선도 하루 1회 운행한다. 출발시각은 강진발 오전 10시, 청주발 오후 5시 10분이다. 소요시간 및 요금은 강진~인천 5시간 30분·2만3천800원, 나주~인천 4시간 30분·1만9천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

국제 결혼 이주여성 모국방문 희망 쫓다

농협 곡성군지부, 항공권 등 지원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한재식)가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모국 방문 지원에 나섰다. 곡성군지부는 이주 여성 최모(45)씨 등 2명에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과 여행자 보험 및 체류비 등 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오는 11일 고향인 중국 요녕성으로 출발하게 된 최씨는 "농협에서 고향방문을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는데 선정돼 너무 기쁘다"며 "중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 귀여운 손녀들을 보여 줄 생각에 마음이 설레인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문화복지재단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계경기자 kjkim@

완도군 지역인재 육성 앞장

郡, 장학사업 활성화(재)장보고 장학회 설립

완도군이 지역인재 육성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6월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장보고 장학회를 설립했다. 장보고장학회는 출범 40여일 만에 700여명의 독자와 지역민이 참여, 3억여원의 장학금이 기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장학기탁은 어린 학생의 꿈자리에서부터 군 장학금을 받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혜자, 기관단체 임직원,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94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5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했으나, IMF이후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이번엔 별도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 장학회는 지난 7월 관내 고등학교 1학

년 성적우수자 60명을 선발, 광주 유명학원 임시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어·영어·수학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완도초등학교에 전남 최대규모의 영어체험 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김종식 군수는 "2011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1군민 1개좌 갖기' 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군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대도시 못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장학사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기자 동행 허위서류 작성 해외 출장비 더 빼내 말성

순천시 공무원이 방송사 기자 명의를 도용해 해외여행비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 5급 공무원 K모씨는 지난 2004년 모 방송사 기자가 시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 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490만 원을 부당 인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K씨는 당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투자유치 명목으로 해외를 순방하면서 부당 인출한 490만 원 중

210만 원은 항공료와 숙박비로, 280만원은 선물비와 가이드 봉사료,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K씨에 대해 징계할 것을 순천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간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해당 공무원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평화·통일기원 달리기대회 순천경찰 교통질서 캠페인



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가 지난 7일 순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기원 전국 달리기 행사장 일대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순천경찰서는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예방 유인물과 부채 등 홍보물도 배포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65세이상 2만1천명 목포시 목욕권 지급

목포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2만 1천여 명에게 경로 목욕권을 지급한다. 목포시는 지난달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최근 시 목

욕회와 목욕 요금 등 경로 목욕권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는 동사무소를 통해 대상 노인들에게 월 2장식의 경로 목욕권을 분기별로 배부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2006년 복지종합평가'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인터뷰

“재소자 인권 존중 힘쓰겠다”

경의성 목포교도소장

“재소자들의 인권 존중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경의성(51) 목포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 출신인 경 소장은 한 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81년 12월 교위로 임용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통영구치소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경숙(46)씨와 1남 1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목포=이상휴기자 lsh@

“유자넵치” 브랜드화 노력”

임여호 고흥 해양수산사무소장

“해양수산업은 21세기 지역유망 거점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신입 임여호(55) 고흥 해양수산사무소장은 “유자넵치의 브랜드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보급해 어렵인 소득증대와 활력있는 어촌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출신인 임소장은 여수 수



산대를 졸업했으며 장흥·진도·해남 수산사무소장과 여수청 수산관리과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명말희(49)씨와 1남 1녀, 취미는 등산. /고흥=주각중기자 gju@